

# 전·현 군수 맞대결 관심...도의원 등 도전 거세

## 신안군수

신안군수 선거는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평화당 소속 고길호 군수에 맞서 후보군들의 도전이 거세다. 특히 전·현직 군수 간 맞대결 성사 여부와 민평당 경선 여부도 관련 포인트다.

현직인 고 군수는 민선 6기 동안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분야 최우수상, 국제해양관광도시부문 대상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 군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특성을 잘 살리고, 지역 환경에 맞춘 '맞춤 행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이같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에서는 정영선 전남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고 군수와 의 경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에서는 박우량 전 군수와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흥빈 전남도 의원, 박석배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등록 마감 직전 기정사 문제로 돌연 출마를 포기한 박우량 전 군수는 민선 4·5기 군수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민심을 다지고



고길호 군수



김승규 전 국장



박석배 부의장



박우량 전 군수



임흥빈 도의원



정영선 도의원

## 평화당 고길호 현군수에 정영선 경선 도전장

## 민주당 박우량·김승규·임흥빈·박석배 경선

었다. 그는 8년 간의 군정을 이끌며 지난 군수시절 못 이룬 주요 공약들을 이뤄내고 청년이 돌아오는 섬과 해양소득 중심 등의 주요 공약을 가지고 표심 결집에 나서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 군수에게 1928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한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김 전 국장은 한 번의 패배를 교훈삼아 신안군을 세계적인 해양리조트로 만들고 노인복지 증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전 국장은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탄탄하게 다져놓은 두터운 중앙부처 인맥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강점으로 꼽힌다.

3선의 광역의원을 지낸 임흥빈 전남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꾸준히 고수해온 탓에 정당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임 도의원은 수산양식업 선도, 도서 해양문화 및 고대산성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연륙·연도교 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지도·임자·중도의 북부권과

압해, 자은, 암태 등의 정치적 텃밭을 잘 일구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판 승부에 나섰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부터 지금까지 중앙당을 지켜온 박 부의장도 그동안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을 통한 군 발전 방향에 고민해왔다. 그러면서 안정적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창의적인 공직사회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민평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영선 전남도 의원의 이름이 군 민심을 살피며, 그동안 군민들과 함께해 온 정치적 기반을 가졌다는 강점이 있다. 그는 신안만이 가진 천혜자원을 활용한 경제성장, 공정한 행정과 각종 비리 척결을 통한 신뢰성 회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도서 특성상 학연·지연 표심 작용 가능성

## 후보 기근 평화당 경선 관심

## 무소속 출마엔 3파전 초박빙

신안군은 전국에서 섬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다.

14개 읍·면 중 북부지역인 지도읍과 중도·암해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권역별 또는 면 단위 도서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도서지역 특성에 따라 학연과 지연 등에 따른 표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효과적으로 섬 지역 표심을 공략할지 여부가 선거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현재 입후보 예정자 중 고길호 군수와 박우량 전 군수 등 3명이 도초면 출신이다. 민선 6기 중 3~6기까지 도초면 출신들이 모두 당선됐다.

정영선 전남도 의원 출신인 비금면은 인구가 3800여명에 이른다. 김승규 전 국장은 신안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암해읍(6640명) 출신이다.

임흥빈 전남도 의원은 암해읍과

은·암태 등이 지역구이고, 중도와 지도읍, 임자면까지 사실상 집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각 입후보 예정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출생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도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약을 내세워 표밭을 다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안군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속에 신안군의 경제성장을 이끌 '인물론'을 택할지 주목된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는 후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군수 후보 경선이 치러질지와 민주당 또는 민평당 내 경선을 피해 무소속 출마자가 나타날지도 여부다.

만약, 무소속 출마자가 나타나 민주당과 민평당, 무소속 등 3파전으로 본선이 치러질 경우 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현 군수 벽 높아 입지자들 출마 접어...싱거운 본선 될 듯

## 완도군수

완도군수 선거는 의외로 싱겁게 끝날 조짐이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기도 전에 입지자들이 하나같이 군수선거 출마의사를 사실상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이 후보자를 내겠다는 입장이 강경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신우철(65) 현 군수의 단독입후보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 군수는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지역민을 위한 수산정책을 마련하고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17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는 애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흥행 대박을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국내 해조류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수가 갖는 대중적 인지도, 조직력 등 현직 프리미엄이 워낙 큰데다, 작은 섬이 많은 완도에서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



신우철 군수



김신 전 군의원

## 민주당 신우철 군수 단독 입후보 가능성

## 평화당 김신 전 군의원 막판 출마 고심

봉사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나머지 입지자들 역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탓에 현 군수의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천제영(61) 전 순천부시장 역시 통화에서 "출마를 위해 고심을 거듭했지만 4년간 더 완도를 위해 봉사한 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부시장은 "완도는 읍을 제외한 대다수 면들이 섬으로 구성됐다. 정치신인이 몇 개월 노력해서 낚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의지를 다졌지만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김신(55) 전 진도군의원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총력지원 할 테니 군수선거에 나서달라는 당의 요구를 받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도

의원 도전에 무기가 실린다.

김 전 군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거듭된 군수선거 도전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군수선거에 나서기에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으나 싫어 도의원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선거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수선거 구도와 관련해 "도의원 선거로 방향을 튼다면 신우철 현 군수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99%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은 현직·정당·무소속·가나다順

## 완도민의 민주당 사랑 이번에도 이어질까

## 민선 6기까지 모두 민주 출신

## 출마설 거론 후보들 잇단 포기

지난 6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완도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극 정성이 엿보인다.

민선 1~6기까지 주민들은 사실상 모두 민주당 소속 후보를 군수로 뽑았기 때문이다.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뿌리깊은 텃밭이라고 해도 다른 전남의 다른 시·군의 경우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킨 전례가 적지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군수 선거에서만큼은 완도군민의 민주당 지지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선 후보자가 연거푸 군수자리에 오르는 완도의 전통 아닌 전통은 다가올 6·13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 신우철 완도군수를

제한 나머지 입지자 3명이 사실상 군수선거 도전 의사를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천타천 출마설이 거론되던 무소속 박현호 전남도의원, 천제영 전 순천부시장이 출마 의사를 거둬들이는데다 민주당의 뿌리깊은 텃밭이라고 해도 다른 전남의 다른 시·군의 경우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킨 전례가 적지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군수 선거에서만큼은 완도군민의 민주당 지지는 각별하게 다가온다.

초대 민선 완도군수는 민주당 차관후보가 지냈다.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차관후보가 완도 군수 자리에 올랐다. 이후 제3~5회 지방선거에서는 완도부군수를 지낸 김종식 후보가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간판을 달고 3선에 성공한 바 있다. 제 6회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우철 현 완도군수가 당선됐다. 완도 군수 재보궐선거가 여태 단 한번도 치러지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TÉLÉSIS Paris**

TELÉSIS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TELÉSIS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자이너 & 브랜드 운영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관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자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곳!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